

전주시 · 출연기관 합동간부회의 정례화

시정 방향 공유 · 소통 강화 위해 매월 1차례 운영

전주시가 원활한 시정 운영과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간부회의를 신설해 매월 1차례씩 열기로 했다.

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주재하에 완산·덕진구청장과 국·소장, 시 산하 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출연기관 합동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부회의는 시정 목표와 현안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적 협업 체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간부회의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간부 공무원뿐 아니라 시 산하 6개 출연기관장까지 참여 대상을 늘렸다.

우 시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 2차 추경 등 새정부 정책 변화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및 K-콘텐츠, 방산산업 육성 등 대통령 공약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 시장은 대통령 공약에 국도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를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인 △하계을 립키 개최 도시 선정 대응 △완주·전주 통합추진 등과 같은 대형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및 정치권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새 정부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연기관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시민 밀착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시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시·출연기관 합동 간부회의'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는 합동 간부회의 정례화를 통해 출연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출연기관의 시정 기초를 담은 정책기획 강화 △기관 운영의



전주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 주재하에 완산·덕진구청장과 국·소장, 시 산하 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출연기관 합동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혁신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출연기관이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 아래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협업 모델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그동안 매월 1회 부시장 주재로 열린 출연기관장 회의도 그대로 유지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유기적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주시도 새로운 도약을 이를 기회인 만큼,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정 추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부서를 비롯해 전주시 6개 출연기관이 같은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의료·돌봄 우수성 입증

김경훈 통합돌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발전 기여 표창 수상

전주시가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지원체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노인복지과 소속 김경훈 통합돌봄사례관리사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로부터 '2025년도 통합사례관리 발전 기여 분야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경훈 사례관리사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면밀하게 발굴·연계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례관리 내실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수상자로 결정돼 통합사례관리 분야에서도 전주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핵심으로 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해오며 건강 문제와 돌봄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고위험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특히 '시 통합지원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례 관리 기반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운영과 퇴원 환자 건강관리, 방문 간호, 재활 및 한방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의료 자원 활용 모델을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며,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훈 사례관리사는 "전주시의 의료·돌봄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실무자들과 함께 더욱 촘촘한 의료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책기동도서관, 주말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청 로비 책기동도서관이 주말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책놀이터로 제공한다.

전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로비 책기동도서관에서 매회 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 10팀을 대상으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책놀이 전문가인 김귀남·임미령(매월 2주차), 김은숙·장성미(매월 4주차) 강사와 함께 △메이 목걸이 만들기 △거북등 꾸미기 등 도서와 연계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전주시도서관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각 회차별로 각각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기동도서관 담당자(063-230-1845)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는 책기동도서관에서 책놀이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과학 마술 공연 △동네책방 협력강연 △소설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여름철 대비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강화

전주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77개소 대상 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실시

전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 분야에 대한 사전 집중 관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7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에서 ATP(간이세균오염측정기)를 활용

해 조리기구와 조리종사자의 손 등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해 식중독에 대한 종업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율 위생관리 점검표를 통해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비브리오팀 발생 증가 등 수산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수검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 관리에 취약한 다소비 배달 음식점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시설, 식재료,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 상태 점검 △냉동·냉장 제품 적정온도 유지 및 소비(유통)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 표시 기준,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용열을 및 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등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주로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비브리오팀균 등과 같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올해도 여



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호성작은도서관,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개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호성작은도서관(관장 김혜순)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8회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음악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과 학생 등을 포함한 35여 명의 주민이 공연에 참여하였으며, 오키나와 연주를 시작으로 강민철 주민자치위원장의 시 낭송, 독창, 우쿨렐레, 기타 연주 등 다

채롭고 풍성한 무대로 꾸며졌다.

음악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주민들은 초여름밤 풀내음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감상하며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순 호성작은도서관장은 "바쁘신 가운데 공연해주신 출연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호성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책이랑 놀자', '신나는 한국사', '영어회화', '독서모임'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권희성 기자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비 활동 펼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동장 김은성)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태현)가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 정비 활동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서신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섰다.

지난 14일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 회원 및 관내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신동 일원을 거닐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



동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과 더불어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빗물받이 정비를 중점 실시했다.

/권희성 기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